

‘대체 불가’ 김호령 “커리어하이 다시 쓴다”



지난 13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SSG와의 시범경기 타석에 선 KIA 김호령 <KIA 타이거즈 제공>

4경기 연속 안타...시범경기부터 불방망이

‘수비형 외야수’에서 공·수 밸런스 장착 ‘불박이 중견수’ 존재감 ‘에비 FA’ 확실한 동기 부여, 타격감·컨디션 100% 풀타임 기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중견수 김호령이 시범 경기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타격에서는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수비에서는 넓은 범위의 안정감을 보여주며 공수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

김호령은 지난 1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kt와의 홈 경기에서 2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5-4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1회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3회 1사 1루 상황에서 좌익수 옆으로 빠지는 2루타를 터뜨렸다.

이 타구로 1루 주자 데일이 홈을 밟았다. 시범 경기 개막전 SSG전부터 이어진 4경기 연속 안타였다. 이어 카스트로의 적시타때는 홈까지 파

고들며 득점까지 올렸다.

15일 기준 시범경기 4경기에서 타율 5할을 기록하며 리그 타율 1위에 올라 있다.

전날 kt와의 경기에서는 3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수비에서도 눈에 띄는 장면을 만들어냈다. 1회초 외야 깊숙한 타구를 펜스 앞까지 빠르게 따라가 잡아냈다. 타구가 빠졌다면 최소 2루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선발 투수 네일도 놀랐다는 제스처를 보였다. 김호령의 강점은 역시 수비다.

빠른 발과 넓은 수비 범위를 바탕으로 외야에서 중심 역할을 맡아온 자원이다.

이처럼 그는 시범경기 초반이지만 공수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오는 28일 개막하는 2026 정규시즌을 앞두고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2015년 KIA에 입단한 그는 통산 775경기에 출전해 타율 0.245, 26홈런, 161타점, 58도루를 기록 중이다. 장타력을 앞세운 유형은 아니지만 주루와 수비에서 팀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는 타격에서도 의미 있는 시즌을 보냈다. 105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3, 94안타, 26개의 2루타를 기록했다. 39타점을 올렸고 장타율 0.434, 출루율 0.359로 개인 성적에서도 커리어하이 만들었다.

시범경기에서 보이는 타격 흐름 역시 지난해 상승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타석에서 공을 맞는 장면이 늘어나고 있고 타구 질도 나쁘지 않다.

KIA 입장에서 김호령의 활약은 반가운 요소다. 중견수 수비는 물론 상위 타순에서 공격의 연결 고리를 맡아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올 시즌이 끝나면 FA 신청 자격도 얻는다. 결국 올해 성적에 따라 그의 시장 가치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시범경기는 어디까지나 시즌 준비 과정이지만, 출발은 나쁘지 않다. 공수에서 보인 안정감이 정규시즌에서도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주홍철 기자

‘원정 3연전’ 첫판, 승리로 물꼬 튼다

패배를 모르는 프로축구 광주FC가 김천상무 원정에서 승리에 도전한다.

광주는 17일 오후 7시30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김천과 하나은행 K리그1 2026 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정규 감독 체제에서 새 시즌을 시작한 광주는 올 시즌 초반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1라운드 제주SK FC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뒤,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 개막전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이어 전북현대와의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근 3경기 연속 무패(1승 2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경기는 ‘김천 상무-서울FC-강원FC’로 이어지는 원정 3연전의 첫 경기로, 시즌 초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북전 이후 3일 만에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 부담은 있지만, 빠른 공격 전개와 세밀한 플레이를 앞세워 리그 개막 후 4연속 무패를 노린다는 각오다.

광주는 김천과의 역대 전적에서 2승 2무 2패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지난 시즌 세 차례 맞대결에서는 1승 2무로 우위를 보였다. 다만 김천 원정에서는 1무 2패로 승리가 없어 이번 경기에서 원정 징크스 탈출도 함께 노린다.

상승세 광주FC, 오늘 김천 원정...4경기 연속 무패 도전



광주FC 문민서가 지난 14일 열린 전북현대와의 홈경기에서 강상윤과 볼을 다루고 있다. <광주FC 제공>

김천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다. 올 시즌 개막 이후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며 아직 첫 승은 없지만, 전북과 대전을 상대로 각각 1-1 무승부를 거두는 등 경쟁력을 보여줬다. 이견희, 고재현, 홍운상 등 한 방을 갖춘 공격수들이 꾸준한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는 김천의 빠른 역습을 경계하면서도 조직적인 수비와 공격 전개를 통해 승리를 노리고 있다. 김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희중 기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국기원 명예 6단증 받아

태권도 저변확대 기여 공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기원으로부터 명예 6단 단증을 받았다.

명예 단증은 윤용석 국기원장을 대신해 윤용철 광주시태권도협회장이 지난 15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에게 전달했다. (사진)

국기원은 태권도의 보급과 진흥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심사를 거쳐 명예 단증을 수여하고 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번 명예 단증을 국기 태권도에 대한 애정을 잃지 말라는 격려와 당부로 받아들일 것이다”며 “지역 태권도 꿈나무 발굴과 육성을 지원해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제68회 춘계 전국중·고검도대회에서 선전을 펼친 서석중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서석중 검도 허경도 “적수가 없다”

춘계 중·고검도 개인전 우승...첫 출전 용봉중, 여자단체전 정상

서석중 검도부 허경도에게 적수는 없었다. 허경도는 지난 15일 강원 제1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8회 춘계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 남자중등부 개인전 결승에서 조보민(순천왕운중)을 2:0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허경도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상대의 다양한 기술과 변칙적인 전략에도 흔들림없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허경도는 지난해 12월 열린 춘계 전국 검도대회와 지난달 열린 2026 SBS배 전국 검도왕대회를 이어 3번째 전국대회 우승을 기록하며 강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팀 동료 권민수와 오승현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허경도는 “남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며 “5월에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팀 주장으로서 반드시 우승할 수 있도록 팀을 잘 이끌겠다”고 말했다.

여자중등부 단체전에서는 용봉중이 우승을 차지했다.

오지검도관 출신 선수로 구성된 용봉중은 올해 첫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신고하며 들끓을 예고했다. /박희중 기자

“전남 체육 빛낸 여러분이 진정한 스포츠 영웅”

전남도체육회가 16일 전남도체육회관에서 2025년 전남 체육을 빛낸 체육인 92명에 대한 ‘2025 각종 표창장(패)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수식 표창 내역은 국무총리 표창 1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7명, 대한체육회장 표창 67명, 전남도교육감 표창 19명 등이다.

강재홍 전남도체육회 생활체육지원부장은 전국체전준비단장으로서 대한민국 체육 발전의 공헌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김재역 나주시체육회장, 최경철 완도군체육회장, 조규철 진도군체육회장, 주대필 광양시체육회 부회장, 허범술 진도군체육회장(전남도체육회 이사), 최순임 영광군체육회 지도자, 이수진 전남도체육회 스포츠클럽지원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 박송엽 전남도체육회 이사 등 총 67명은 대한체육회장 표창을 받았고, 나상근 전남산악연맹 이사 등 체육단체 관계자 27명은 전국체육대회와 학생문화축제 등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남도교육감

전남도체육회, 2025 빛낸 전남체육인 92명 표창장(패) 전수식



표창을 받았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지난해 전남 체육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온 체육인 여러분의 노고가 오늘의 값진 표창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체육인들의 깊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전남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